

기생충검사 왜 계속해야 하나



주 경 환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기생충문제는 국민의 90% 이상이 감염되어 있어 결핵과 더불어 중요한 국민병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20년 이상 지속된 효율적 집단관리로, 결핵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기생충문제는 거의 사업종결의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총 인구중 400만 정도가 기생충을 갖고 있으므로 사업종결을 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생충관리는 시작이 확실하지 않으나 1958년에 발족되었던 한국 위생동물협회를 기폭제로 하여 1959년의 대한기생충학회 창립, 같은 해 8월, 보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기생충 예방대책위원 구성등으로 기생충관리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경제적인 문제, 기술적

문제 등에 의해 집단관리에는 어려움이 많아 1968년 한일의료협정에 따라 다음 해 일본에서 기자재가 도입되고 셀로판후층 도말법이라고 부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검사법이 사용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본격화 되었다.

대체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봄·가을 2차례 대변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사는 무료투약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1971년 부터는 전국규모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도 병행하게 되어 보다 구체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고 관리사업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총란양성률은 1971년의 84.3%로부터 1986년 4차 한국 장내기생충 감염현황 조사에서는 12.9%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생충 종류별로는 회충란이 1971년의 54.9%에서 1986년에는 2.1%로, 편충란은 65.4%에서 4.8%로, 십이지장충란은 10.7%에서 0.1%로 각각 감소되었다.

토양매개성 선충류의 이같은 감소는 화학비료의 대량사용,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의 개선, 개인위생상태의 향상등 많은 요인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효과높은 구충제의 개발 및 20년 이상 지속 되어온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집단 검변 및 투약사업이 재감염의 근절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장내 기생충의 감염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일부에서는 이 상태에 만족하고 더 이상의 집단관리는 필요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그리고 또 낭만적으로 대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

검사를 하지 않고 투약할 경우, 시중의 구충제로 구충되지 않은 기생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선 우리의 기생충감염률이 어느 정도 내려가야 사업을 종료하고 다음 부터는 자율에 맡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북미, 유럽, 일본등은 우리처럼 광범위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감염률을 알기는 힘들다.

여하튼 1973년에 일본 기생충 예방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약 600만건의 조사결과 0.9% 정도가 충란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회충은 0.35% 정도의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충란양성률이 1.0%, 회충은 0.5%를 보이고 있어서 일본의 17년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1981년에 나온 일본의 검사성적에 있어서 회충이 0.1% 이어서 우리가 일본과 비슷해 지려면 아직 5~6년은 더 걸려야 할 것 같다.

일본은 1961년부터 년 1회씩 대변검사를 하다가 1973년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희망자들에게 년 1회 검사를 실시하는 바 연간 검사 건수로 볼 때 상당수가 검사에 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생충의 집단검사를 회피하는 이유는 몇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검사숫자에 비해 양성자수가 적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에 따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검변재료를 수집하는데 따르는 학부형, 학생, 교사들의 민원이 많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력 상승으로 많은 가정에서 매해 봄·가을로 구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기도 한다. 검사숫자에 비해 양성자 수가 적다는 것은 분명히 비용-효

**“정기적인 대변검사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매년 확인한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율성의 관계에 있어서 적지않은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몇 안되더라도 양성자를 찾아 치료해 주거나 또는 치료를 권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대변검사를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제력상승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봄·가을 약을 복용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무검사투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간단히 짚어보자.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위 광범위구충제는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요충 등의 구충작용 밖에 없으므로 실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간·폐·장흡충류(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등), 조충류(유구조충, 무구조충, 광절열두조충등)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사실도 모르는 채 약을 먹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생충에 걸린 것을 등한시한 채 장기간 신체적 손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폐결핵, 간염등은 그래도 증상이 나타나



무검사 투약을 천만명에게 하면 100억원이 든다. 그러나 대변검사 후 투약을 하면 30억원이면 충분하다. ↑

므로 초기에 발견이 되지만 기생충질환은 급격히 심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활동능력을 조금씩 손상시키는 소모성질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간디스토마는 많이 감염되면 황달이나 간이 붓는 따위의 징후가 나타나지만 적게 감염된 경우에는 만성적인 피로감만이 나타나므로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예산상의 낭비라는 생각에 대하여, 물론 돈을 지출하는 측에서 보면 자산의 확보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소비효과밖에 없으므로 많은 액수의 돈이 순식간에 공중 분해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아서는 지출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제대로 관리하려면, 각자 부담하던 국가가 부담하던간에 어차피 지출되어야 할 돈이며 무검사투약을 1000만 명에게 하면 100억원이 드는 반면 대변검사

실시후 투약하면 30억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므로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학생·학부형·교사들의 민원이 많다는 문제에 대하여는 대변을 취급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할 때 수궁이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보다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우선 가까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갈치, 생태, 봉장어(아나고)의 내장을 한 번 보시기 바란다. 살아있는 벌레들이 그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한 번 보시고, 그리고는 우리들의 자녀, 동생을 한 번 바라보시기 바란다. 그들의 뱃속이 또 우리들의 뱃속이 그와 같으리라고 생각이 드시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기생충검사를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으로 믿는다. 불쌍한 생명체와 더불어 산다는 뜻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필자=고려의대 교수〉